

高句麗의 對隋戰爭과 遼西攻略

尹秉模*

- 1. 머리말
- 2. 隋文帝 침공 전후 嬰陽王의 遼西공격
- 3. 隋煬帝 침공과 고구려군의 遼西반격
- 4. 맺음말

1. 머리말

고구려는 수가 건국한 지 17년이 지난 후인 598년에 영양왕이 직접 말갈 기병 1만여 명을 동원하여 요서를 선제공격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일찍이 고구려가 어떤 유리한 전략적 지점을 먼저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고,¹⁾ 고구려가 거란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1) 이병도, 「高句麗 對隋·唐抗爭과 濟·麗의 崩壞」, 『韓國史』(古代篇), 을유문화사, 1959, 466쪽; 이병도, 「高句麗對隋唐抗戰」,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427쪽; 이만열, 「高句麗와 隋唐과의 7쪽」,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8, 494쪽; 온창일, 「삼국시대의 전쟁」, 『韓民族戰爭史』, 집문당, 2001, 72쪽.

는 의견도 있어 왔다.²⁾ 또한 요서공격은 근본적으로 고구려의 독자성을 견지하려는 극단적인 방법이었다는 평가와 함께,³⁾ 고구려와 수와의 장차 본격적인 전쟁에서 유리한 전황을 이끌려는 '예방전쟁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있다.⁴⁾ 한편 그 대상이 영주총관부였으며 598년 공격으로 고구려가 요서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였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며,⁵⁾ 상대국의 전쟁유지 능력과 고구려 선공에 대한 승리 가능성을 시험해본 영양왕의 결단이라는 주장도 있다.⁶⁾ 단재 신채호는 영양왕이 姜以式에게 정병 5만을 주어 臨渝關으로 향하게 하고 1만은 요서를 공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요서 진출론을 제기했다.⁷⁾ 이에 더 나아가서 고구려가 북제시기에 요서에 진출하여 갈석에서 발해에 이르는 요서의 해안 지대를 통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⁸⁾ 그러나 이처럼 각론에 차이를 보인다하더라도 영양왕의 공격이 대수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부분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수양제는 612년과 613년, 614년 등 3차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한다. 그러나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은 고구려가 요하와 같은 장애물을 이용한 阻水拒守, 들판에서의 堅壁清野, 城에서의 嬰城拒守라는 대응전략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참패하게 된다. 그런데 고구려 침공에서 수양제의 유일한 성과라는 것은, 武厲邏의 함락과 함께 通定鎭과 遼東郡의 설치에 있다.

이 무려라에 대해 525~527년간에 설치되었다는 견해와,⁹⁾ 수양제 이전에

2) 이용범,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 『史學研究』 4, 1959, 70쪽.
 3) 이호영,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117쪽.
 4) 서인한, 「고구려 대외 전쟁기」,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46쪽.
 5) 이성제,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攻擊」, 『震檀學報』 90, 2000, 23쪽; 이성제, 「고구려와 契丹의 관계」, 『北方史論叢』 5, 2005, 146쪽.
 6) 신형식,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수·당과의 항쟁」, 『高句麗史』, 이화여대출판부, 2003, 187쪽.
 7) 신채호, 「朝鮮上古史」, 『丹齋申采浩全集』 上,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82, 260쪽.
 8) 서병국, 「百濟와 高句麗의 遼西統治」, 『실학사상연구』 19·20, 2001, 59~60쪽.

설치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¹⁰⁾ 무려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松井 等이 遼寧省의 新民縣 遼濱塔이라 하였고¹¹⁾ 譚其驥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¹²⁾ 王綿厚는 신민현의 高臺山 高麗城으로 보았다.¹³⁾ 노태돈은 특정 지역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다만 신민현에 있었다고 보면서도, 무려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요하선의 방어와 함께 대릉하 유역으로의 진출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¹⁴⁾ 반면에 전준현은 무려라가 醫巫閭山 동남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그 성격도 요하 서쪽 지방의 국경지대를 수비하던 방어부대라고 주장했다.¹⁵⁾ 이성제도 무려라의 위치가 육로상의 요충지에 세워져야 마땅하다며 의무려산 일대를 주장하였다.¹⁶⁾ 이상에서 무려라의 위치는 요녕성 신민현이라는 주장과 의무려산 일대라는 의견이 각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고구려의 대수전 연구¹⁷⁾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인 고구려가 요하 이동에서 주전선을 형성하고 遼河 및 大凌河 이서지역으

- 9) 井上直樹,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情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 2000, 28쪽; 井上直樹, 『韓暨墓誌を通してみ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 『朝鮮學報』 178, 2003, 28쪽.
- 10) 이용범, 『韓滿交流史 研究』, 동화출판공사, 1989, 183쪽.
- 11) 松井 等,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 『滿洲歷史地理』 上,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388쪽.
- 12)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8, 63쪽.
- 13) 王綿厚·李健才,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1990, 150쪽.
- 14) 노태돈,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1976, 41쪽.
- 15) 전준현,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194쪽.
- 16) 이성제, 앞의 논문, 2000, 15쪽.
- 17) 이병도, 앞의 책, 1959; 이병도, 앞의 책, 1976; 이만열, 앞의 책, 1978; 전준현, 앞의 책, 1988; 서인한,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국방군사연구소, 1991;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4; 강성문, 『麗隋·麗唐戰爭 原因考』, 『國史館論叢』 69, 1996; 이호영, 앞의 책, 1996; 배항섭, 『韓國古代軍事編年史』, 국방군사연구소, 1996; 손영중,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온창일, 앞의 책, 2001; 신형식, 앞의 책, 2003; 서인한, 앞의 책, 2005;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로선 진격하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隋文帝 침공 전후 嬰陽王의 遼西공격

581년 2월 수가 건국되고 10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돌궐을 박대한다며 沙鉢略可汗이 북제의 잔여세력인 영주자사 高寶寧과 함께 수에 침공하였다. 582년 5월 四面가한을 비롯한 돌궐의 5가한은 4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보녕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장성을 넘었으나, 583년 4월에 수의 幽州總管 陰壽가 보기 10만 군을 이끌고 盧龍塞를 나와 이들을 격퇴하였다. 고보녕은 돌궐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거란으로 피신하였다가 부하에게 피살당하고 말았다. 이로써 고보녕이 지배하였던 영주 일대가 수에 의해 평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수가 영주일대를 당장 지배하였던 것은 아니었다.¹⁸⁾ 583년 곧바로 수가 영주지역에 영주총관부를 설치하지 못하고 유주총관 예하의 成道昂으로 하여 지키게 한 것은 이를 뜻한다.¹⁹⁾ 여기서 고보녕이 거란, 말갈, 돌궐과 연합하여 수를 공격하였다는 것은,²⁰⁾ 이들 유목민족이 영주 일대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그 세력을 키웠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고구려는 돌궐 및 거란, 말갈 등 유목민족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보녕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인 581년 12월에, 고구려가 수에 사신을 보낸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¹⁾ 즉 고구려는 고보녕

- 18)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24쪽.
- 19) 『隋書』 卷39, 列傳, 陰壽; 黃龍諸縣悉平 壽班師 留開府成道昂鎮之.
- 20) 『隋書』 卷39, 列傳, 陰壽; 尋引契丹 靺鞨之衆來攻.
- 21)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二十三年; 十二月 遣使入隋朝貢.

의 침공이 있자 바로 581년 12월 壬寅에 처음으로 수에 사신을 보냈는데,²²⁾ 수문제는 평원왕에게 大將軍 遼東郡公을 제수하였다.²³⁾ 수문제가 평원왕에게 준 대장군 요동군공이라는 직함은 577년 북주가 내린 開府儀同三司 大將軍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²⁴⁾은 물론 북제의 廢帝가 560년 평원왕에게 준 使指節 領東夷校尉 遼東郡公 高句麗王²⁵⁾보다도 지위가 낮은 것에 해당한다. 이는 수가 화북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어서 일단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고구려가 돌궐을 공격한 사건으로 보이고 있는 사료가 있어 주목된다.

A) 往年에 利稽察은 고구려와 靺鞨에 의해 크게 패배당했다.²⁶⁾

라고 하는 데서 '往年'을 551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²⁷⁾ 즉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조에 나오는 551년 돌궐이 고구려의 신성과 백암성에 침공한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정황과 시기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다. A)의 기사가 수문제의 조서 중에 나온 것임을 고려한다면 581년과 582년 사이에 일어난 사실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581년 12월 고보녕이 돌궐과 함께 수를 침공하자마자 바로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고, 수문제가 평원왕에게 대장군 요동군공이라는 작위를 준 점에서도 그렇다.

위 기사는 또한 고구려가 당시 거란을 기미지배하던 돌궐의 利稽察을 공격하였던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고구려가 582년 1월과 11월,²⁸⁾ 583년 1

22) 『隋書』卷1, 帝紀, 高祖元年(581): 壬寅 高麗王 高陽遣使朝貢 授陽大將軍 遼東郡公.

23)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二十三年.

24)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十九年.

25)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二年.

26) 『隋書』卷84, 列傳, 突厥: 往年 利稽察大爲高麗 靺鞨所破.

27) 日野開三郎, 「粟末靺鞨の對外關係」,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5, 三一書房, 1991, 194 쪽.

28)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二十四年: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冬十一月 遣使入隋

월과 4월, 583년 겨울²⁹⁾ 그리고 584년 봄³⁰⁾에도 隋에 계속 사신을 파견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돌궐이 고보녕사건에 개입하여 수와의 대결에 집중된 틈을 타 고구려가 요서지역 거란의 항배를 놓고 돌궐과 대립하여 돌궐 세력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³¹⁾ 그러나 거란은 이때 돌궐의 기미지배에서 벗어나 수에 내부한다. 이는 584년에 거란주 莫賀弗이 수에 내부한 점이나,³²⁾ 585년 거란주 多彌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친 것,³³⁾ 587년 거란국 大莫弗이 수에 입조한 것³⁴⁾ 등에서 확인된다. 585년에 돌궐의 사발라가한마저 수에 칭신하며 요서지역은 수의 영향력하에 떨어진 다.³⁵⁾ 한편 이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를 검토할 수 있다.

B) ㄱ) 後魏 때에 고구려의 침공을 받자 그 部落 萬餘口가 內附하여 白獮河에 머물렀다. ㄴ) 그 후 다시 돌궐의 꺾박을 받자 또 萬家가 고구려에 의탁하였다. 開皇 4년(584) 諸莫賀弗이 來講하였다. 開皇 5년(585) 그 무리들이 수에 항복하니 高祖가 그들을 받아들여 故地에서 살도록 하였다. 6년(586) 거란의 諸部가 서로 공격함을 오랫동안 지속하였고, 또 돌궐과도 서로 침범하였다. 高祖가 사신을 보내어 이를 꾸짖으니 거란은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였다. ㄷ) 그 후 契丹別部인 出伏 등이 고구려를 배반하고 무리를 이끌고 수로 내부해 오니 高祖가 이를 받아들여 渴·奚·那頡의 북쪽에 安置하게 하였다. ㄹ) 開皇(581~600)末에 그 別部 四千餘家가 돌궐에 등지고 수에 귀부하였다. 上은 돌궐과 和好하고 있던 때이기도 하고 遠人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거란에게

朝貢.

29)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二十五年: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夏四月 遣使入隋朝貢 冬遣使入隋朝貢.

30)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二十六年: 春 遣使入隋朝貢.

31) 정재훈,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 『中國史研究』 13, 2001, 83쪽.

32) 『隋書』卷1, 高祖紀: (開皇)四年... 五月癸酉 契丹主莫賀弗遣使請降 拜大將軍.

33) 『隋書』卷1, 高祖紀: (開皇)五年... 夏四月甲午 契丹主多彌遣使貢方物.

34) 韓暨墓誌: 七年 領大將軍 契丹國 大莫弗入朝.

35) 『隋書』卷1, 高祖紀: (開皇)五年... 秋七月... 壬午 突厥沙鉢略 上表稱臣.

식량을 주어 본거지로 돌아가게 하고 돌궐에게는 조칙을 내려 그들을 달래도록 하였으나 거란은 고사하고 가지 않았다. 그 사이 부락이 점차 증가하여 드디어 북으로 水草를 따라 이사하였다. 그곳은 遼西 正北 200리의 託紇臣水로 東西 500리, 南北 300리에 걸쳐 10部로 나누어져 있다. … 돌궐의 沙鉢略可汗은 吐屯 潘垓을 보내어 이를 통섭하였다.³⁶⁾

라고 하는 데서 B)의 ㄱ)은 479년 고구려의 막불하물우 거란원정을 말한다. 그런데 ㄱ)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북위로의 거란내부가 '萬餘口'인데 비해, ㄴ)에 돌궐의 꺾박을 받고 고구려로 의탁한 거란이 '萬家'라는 점이다. 만여구와 만가는 분명히 다른 단어이며, 『위서』에 나오는 선비족을 근거로 1가를 7명으로 계산하여도 고구려로의 거란인 기부는 7만 명이나 된다.³⁷⁾

때문에 이 기사를 부정하는 견해가 기왕에 있는데, 거란이 유목민족으로 요하를 건너 농경지대인 요동으로 1만가 이상이 옮겼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³⁸⁾ 그러나 ㄴ)에서 거란의 別部인 出伏 등이 고구려를 배반하고 무리를 이끌며 수로 내부해 간 점과, ㄷ)의 그 別부 4천여가 등이 돌궐을 등지고 수에 귀부하는 내용을 검토한다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무리를 이끌고 수에 내부'한 출복부 무리가 앞서 고구려에 귀부한 ㄴ)의 만가의 일부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B) ㄴ)의 “그 후 다시 돌궐의 꺾박을 받자 또 萬가가 고구려에 의

36) 『隋書』 卷84, 列傳, 契丹: 當後魏時 爲高麗所侵 部落萬餘口求內附 止于白蠻河 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開皇四年 率諸莫賀弗來謁 五年 悉其衆款塞 高祖納之 聽居其故地 六年 其諸部相攻擊 久不止 又與突厥相侵 高祖使使責讓之 其國遣使詣厥 頓頰謝罪 其後契丹別部出伏等背高麗 率衆內附 高祖納之 安置於渴·奚·那頰之北 開皇末 其別部四千餘家背突厥來降 上方與突厥和好 重失遠人之心 悉令給糧還本 勅突厥撫納之 固辭不去 部落漸衆 遂北徙逐水草 當遼西正北二百里 依託紇臣水而居 東西亘五百里 南北三百里 分爲十部 … 突厥沙鉢略可汗遣吐屯潘垓統之.

37) 內田吟風, 『北アジア史研究』(鮮卑柔然突厥篇), 同朋舍, 1975, 34쪽.

38) 노태돈, 앞의 논문, 1976, 41쪽; 노태돈, 『6세기 중반의 정세변동』,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410쪽.

탁하였다”라는 기사는 돌궐 佗鉢可汗 재위시인 572년부터 581년 사이에 攝圖가 東面可汗이었을 때 발생한 사실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이는 타발가한의 시대에 동면과 서면가한을 각기 두어 북주와 북제 등 중원세력뿐만 아니라 동몽골 지역의 고막해와 거란 등 유목민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통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⁹⁾

한편 B)의 기사 중 ㄷ)에 거란의 출복부가 고구려를 배반하고 수에 내부한 것을 두고 586~590년으로 보는 견해와,⁴⁰⁾ 597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¹⁾ 전자는 590년 수문제가 평원왕에게 새서를 보낸 내용에 ‘말갈을 구 꺾하고 거란을 禁固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거란이 나온다는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후자의 597년 설은 590년 이후로 고구려가 591년 1월⁴²⁾과 592년 1월⁴³⁾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가 597년 5월⁴⁴⁾에 처음으로 수에 사신을 파견한 점을 들어, 거란을 두고 수와 고구려가 대치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하지만 후자의 597년 설은 590년 수문제의 새서에서 이미 거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점이 있고, 또 595년 韋沖이 영주총관에 임명되면서 거란과 말갈을 회유하였던 사실을 검토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고보녕사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보면, 돌궐은 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또 내부의 분열을 통해 그 세력약화가 많이 노정되었다. 그러므로 돌궐의 약화로 인해 그에 부속되어 있던 요서의 거란을 두고 수와 고구려가 쟁탈전을 벌였다. 거란이 수와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구려와 적대적인 속말말갈이 수와 통교할 수 있게 된다. 돌궐이 강세일 때는 突地稽 집단 등 속말말갈이 중국과의

39) 薛宗正, 『突厥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132쪽.

40) 이재성,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충돌』, 『北方史論叢』 5, 2005, 126쪽.

41) 韓昇, 『隋と高句麗の國際政治關係をめぐって』, 『中國古代の國家と民衆』, 汲古書院, 1995, 360쪽.

42)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嬰陽王二年: 春正月 遣使入隋.

43)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嬰陽王三年: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44)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嬰陽王八年: 夏五月 遣使入隋朝貢.

통교를 돌궐을 통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돌궐이 약화됨에 따라 직접 연결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590년 수문제가 평원왕에게 보낸 조서에서 ‘말갈을 구휩하고 거란을 禁固하고 있다’라며 對고구려 적대행위에 대한 명분의 하나로 거란과 말갈 문제를 적시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B)의 기사 중 ㄷ)의 시점은 『책부원구』 기사⁴⁵⁾와 돌지계 집단의 영주정착 시점이 584년 또는 585년이라는 견해⁴⁶⁾를 고려한다면, 586년 전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서 또한 남조의 陳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고구려가 582년과 583년에 각각 2회와 4회라는 많은 사신을 수에 파견하였지만, 585년 12월에는 수와 적대적인 진에 사신을 보냈으며 591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는 수와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⁴⁷⁾ 590년 수문제가 평원왕에게 보낸 조서에서 거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미 590년 이전의 과거 시점에 대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589년 2월 수는 고구려와 접근하는 진을 멸망시켜 西晉 ‘永嘉의 亂’ 이래 분열되어 있던 중국 대륙을 거의 3백년 만에 통일시켰다.

수문제의 중국통일에 대해 『수서』 식화지에서는 “문제가 강남을 평정하여 天下大同의 세상이 왔다”⁴⁸⁾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天下大同’의 관념은 고구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데, 통일된 중국은 고구려를 포함하여 그들이 四夷라고 말하는 천하를 지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⁴⁹⁾ 589년 진을 멸망시킨 수문제의 다음 공격목표는 고구려로 향하고 있었다. 앞서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590년 수문제의 새서에서 수는 고구려를 토벌하여야 할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나선 점이다. 여기서 수문제는 평원왕에게 ‘誠節이 미진하다’고 협박하였고, 요수의 넓이와 고구려 인구를 폄하하였다. 그리고

45) 『冊府元龜』卷977, 外臣部, 降附:(開皇)六年…是年 契丹別部出伏等背高麗 率衆內附 納之 安置於渴·奚·郝嶺之北.

46) 菊池英夫, 『隋朝對高句麗戰爭の發端について』, 『アジア史研究』 16, 1992, 29쪽.

47)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平原王二十七年:冬十二月 遣使入陳朝貢.

48) 『隋書』卷24, 志, 食貨:隋文帝既平江表 天下大同.

49) 堀 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1993, 186쪽.

‘말갈을 구휩하고 거란을 禁固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⁵⁰⁾ 이때의 거란은 거란 별부인 출복부를 지칭하고, 말갈은 584년경 영주 일대에 정착한 속말말갈의 돌지계 집단일 것이다.

평원왕은 곧바로 弩手를 매수하거나 곡식을 저축하는 등의 이른바 ‘守拒之策’으로 이에 대응하였으나,⁵¹⁾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590년 10월에 사망하고 말았다. 곧이어 고구려에서 영양왕이 즉위하자 수는 일단 그를 上開府儀同三司 遼東郡公으로 격하하였으나, 영양왕이 왕으로 봉할 것을 요구하자 수문제는 591년 3월 다시 영양왕을 고구려왕에 봉하였다. 592년에도 고구려는 수에 사신을 보내었다.⁵²⁾ 하지만 595년 韋沖이 영주총관에 임명되고 난 후부터 고구려와 수의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다.

C-1) 高祖가 受禪을 받자 魏興郡公에 進封하였다. 1년여 만에 齊州刺史에 제수되어 검소하게 정치를 하고 士庶에게 은혜를 주었다. 在職한 數年에 營州總管으로 옮겼다. 藝는 容貌가 뛰어나고 커서 夷狄이 매번 參謁하였다. … 番人이 畏懼하여 감히 仰視하지 못하였다. 産業을 크게 하여 北夷와 貿易을 해 資産이 鉅萬이었다. … 開皇15年(595)에 卒官하니 그때 나이 58이었다.⁵³⁾

C-2) 營州總管에 제수된 沖은 용모가 단아하고 寬厚하여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다. 靺鞨과 契丹을 懷撫하자 그들은 모두 능히 死力을 다해 받들었고 奚와 奚이 畏懼하여 朝貢이 끊이지 않았다. 고구려가 일찍이 入寇하자 沖은 병사를 몰고 이를 공격하여 물리쳤다.⁵⁴⁾

50) 『隋書』卷81, 列傳, 高麗:上賜湯璽書曰…王每遣使人 歲常朝貢 雖稱蕃附 誠節未盡 王既人臣 須同朕德 而乃驅逼靺鞨 固禁契丹.

51) 『隋書』卷81, 列傳, 高麗:開皇初 頻有使入朝 及平陳之後 湯大懼 治兵積穀 爲守拒之策.

52)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 嬰陽王三年:春正月 遣使入隋朝貢.

53) 『隋書』卷47, 列傳, 韋世康:高祖受禪 進封魏興郡公 歲餘 拜齊州刺史 爲政清簡 士庶懷惠 在職數年 遷營州總管 藝容貌瓌偉 每夷狄參謁…番人畏懼 莫敢仰視 而大治産業 與北夷貿易 家資鉅萬 頗爲清論所譏 開皇十五年卒官 時年五十八.

54) 『隋書』卷47, 列傳, 韋世康:尋拜營州總管 沖貌都雅 寬厚得衆心 懷撫靺鞨 契丹 皆能致其死力 奚靺畏懼 朝貢相續 高麗嘗入寇 沖率兵擊走之.

라고 하는 기사를 볼 때 韋藝가 魏興郡公에 진봉된 것은 581년에 해당한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수문제가 북주 靜帝로부터 受禪을 받고 수를 건국한 것이 581년이기 때문이다. 또 C-1)의 기사에 의하면 위예는 그로부터 1년여 만에 齊州刺史에 제수되고, 다시 '在職數年' 후에 영주총관으로 옮겨간다. 따라서 '在職數年'이라는 의미를 고려하면 위예의 영주총관 부임 시점은 적어도 585년경일 것으로 보이며, 이때부터 수는 본격적으로 영주 이북의 거란과 해를 장악하였을 것이다.

C-1)의 기사에서 위예가 영주총관으로 부임한 후에 北夷와 무역을 하여 자산이 鉅萬이었다고 한다면, 위예는 영주총관으로 부임하며 거란이나 해, 습 등 유목민족과 거래하며 부를 얻고 그들을 또한 통제하였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는 요서지역을 둘러싸고 정치적,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였음을 보여 준다.⁵⁵⁾ 595년에 위예가 죽자⁵⁶⁾ 수문제는 韋沖을 영주총관에 임명하였고,⁵⁷⁾ 위충은 위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거란 등 유목민족을 직접 회유하고 나섰다. C-2)에 의하면 위충에게 말갈과 거란은 사력을 다해 받들었고, 해와 습은 조공을 끊임없이 받쳤다는 것이다. 해⁵⁸⁾와 습⁵⁹⁾은 각각 거란과 말갈 그리고 돌궐과 연결하여 있어, 해와 습을 지배한다면 돌궐과 말갈을 통제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이처럼 영주총관 위예와 위충이 번갈아 가며 585년경부터 거란과 말갈은 물론 해와 습 등 요서지역의 제부족마저 회유하였다는 것은 고구려로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고구려는 요서에 대한 응징을 택한 것이며, 이는 C-2)의 『수서』 위충전은 물론 다음의

55)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61쪽; 김창석,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과 전개」, 『東北亞歷史論叢』 15, 2007, 117쪽.

56) 『隋書』 卷2, 帝紀, 高祖15年: 三月…營州總管韋藝卒.

57) 『隋書』 卷2, 帝紀, 高祖15年: 四月…開府儀同三司韋沖爲營州總管.

58) 『舊唐書』 卷199, 列傳, 奚: 東接契丹 西至突厥.

59) 『舊唐書』 卷199, 列傳, 奚: 東接靺鞨 西至突厥 南至契丹.

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D-1) 元이 靺鞨무리 萬餘騎를 이끌고 遼西에 침입하였다.⁶⁰⁾

D-2) 고구려왕 元이 靺鞨무리 萬餘를 거느리고 遼西를 침공하자 營州總管 韋沖이 이를 물리쳤다.⁶¹⁾

라고 한 것처럼, 598년 2월 영양왕이 직접 말갈기병 1만여 명을 동원하여 요서를 선제 타격한 것이다. 영양왕의 공격을 받자 수의 영주총관 위충은 이에 즉각 반격을 가해 왔는데, 영주총관 위충이 반격을 가해 왔다는 점에서 영양왕의 최종 공격목표가 영주총관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서』 陸知命傳에 “세 곳의 변방을 평정하였으나 오직 어리고 못난 고구려만이 이리처럼 燕의 변방을 엿보고 있다”⁶²⁾라는 데서도 이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아무튼 영양왕이 직접 親征에 나섰다다는 것은 그만큼 요서지역 이해에 대한 고구려의 적극성을 볼 수 있으며,⁶³⁾ 앞으로 수와의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유리한 전황을 이끌려는 '예방전쟁전략'과도 같은 것이다.⁶⁴⁾

고대의 전쟁은 제왕이 직접 참여하는 親征이 종종 이루어지고는 하였는데, 친정은 그 과정 속에 상대방에 대한 약탈행위가 이어지고 약탈은 전쟁 종료 후에 班賜라는 형태로 이어진다.⁶⁵⁾ 반사는 전쟁 참여 병사들에게 제왕이 승전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물질적 포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영양왕의 공격은 영주총관 위충의 반격을 불러 일으켰으나 친정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반사 행위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고구려 국내의 정치동향 측면을 분석하여 보면, 우선 다소 그 신빙

60) 『隋書』 卷81, 列傳, 高麗: 元率靺鞨之衆萬餘騎寇遼西.

61) 『資治通鑑』 卷178, 隋紀, 文帝開皇 18年(598): 高麗王元帥靺鞨之衆萬餘寇遼西 營州總管韋沖擊走之.

62) 『隋書』 卷66, 列傳, 陸知命: 三邊底定 唯高麗小豎 狼顧燕垂

63) 임기환, 앞의 책, 1994, 159쪽.

64) 서인환, 앞의 책, 2005, 146쪽.

65) 박한제,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일조각, 1988, 206쪽.

성이 문제가 되지만 『일본서기』 531년조에 안장왕 시해사건이 보이고 있다.⁶⁶⁾ 다음으로 惠亮法師가 551년 무렵 ‘今我國政亂 滅亡無日’⁶⁷⁾이라 언급하였고, 557년 양원왕 13년에 환도성에서 干朱理가 모반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고구려 정치세력 간의 갈등 양상은 영양왕의 조부인 양원왕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또한 영양왕대에도 연결되었다고 보여진다.⁶⁸⁾ 이것은 수 양제의 612년 고구려 침공 조서에서 “強臣豪族이 다 國鈞을 잡고 朋黨比周로 풍속을 이루었다”⁶⁹⁾라는 말과 高慈 묘지명에 ‘獨知國政’⁷⁰⁾과 泉男生 묘지명에 ‘咸專國柄’⁷¹⁾이 나온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영양왕은 왕권강화를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또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수에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친정이라는 형태의 요서공격이었다. 영양왕의 왕권강화 조치는 598년 요서공격 바로 직후인 600년 대학박사 李文眞에 의해 新集 5권이라는 國史의 편찬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598년 영양왕의 공격은 395년 광개토왕의 稗麗 원정 이후 200여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요서지역에 대한 친정이라는 의미와 함께, 고구려군 3만이 투입되는 475년 백제 한성 공함전 이후 1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왕의 친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수문제는 영양왕의 공격을 받고 바로 598년 6월 漢王諒과 王世積을 행군 원수로 삼아 수륙 30만 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한다.⁷²⁾ 漢王諒軍은

66)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25年 12月條: 是月 高麗弑其王安.

67) 『三國史記』卷44, 列傳, 居柒夫: 十二年(551) 辛未… 今我國政亂 滅亡無日.

68) 임기환,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的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26쪽; 남무희, 「安原王·陽原王代 정치변동과 고구려 불교계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45, 2007, 61~62쪽.

69) 『隋書』卷4, 帝紀, 煬帝: 強臣豪族 咸執國鈞 朋黨比周 以之成俗.

70) 高慈墓誌: 曾祖式 本蕃任 二品莫離支 獨知國政.

71) 泉男生墓誌: 曾祖子遊 祖太祚 竝任莫離支 父蓋金任太對盧 乃祖乃父 良治良弓 並執兵鈴 咸專國柄.

72) 『資治通鑑』卷178, 隋紀, 文帝開皇18年(598): 上聞而大怒 乙巳 以漢王諒 王世積並爲行軍元帥 將水陸三十萬伐高麗.

요하로 전진하였으나, 계속된 장마와 군량미 부족, 疾疫으로 요하를 건너지 못하고,⁷³⁾ 598년 9월 수군은 철수하였다. 이 무렵 돌궐의 達頭可汗이 598년⁷⁴⁾과 599년,⁷⁵⁾ 600년⁷⁶⁾에 걸쳐 수를 연속 공격한다. 이는 달두가한이 수문제의 고구려 침공 실패를 이용하여 수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고구려는 달두가한의 공격과 연동하여 수에 반격을 가한다.

E) 고구려 땅은 본래 孤竹國이었는데 周代에 이르러 箕子에게 봉해 주고 漢 치세시에 三郡으로 분할되어 晋氏가 遼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不臣하고 따로 外域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제는 이를 몹시 증오하여 오래 전에 이를 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楊諒이 不肖하여 出師의 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폐하의 시대에 당하여 어찌 이를 취하려 하지 않아 이 冠帶의 境을 그냥 蠻貊의 鄉으로 만들겠습니까.⁷⁷⁾

라는 것은 607년 무렵 黃門侍郎 裴矩가 수양제에게 고구려 침공을 건의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배구는 고구려 땅이 본래 孤竹國이라고 하였다. 고죽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盧龍說, 灤河說, 略左說 등이 있는데 이 어느 주장도 요서지역에 위치한다.⁷⁸⁾ 따라서 ‘고구려 땅이 본래 고죽국’이라는 배구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⁷⁹⁾ 다

73) 『隋書』卷45, 列傳, 文四子: 十八年 起遼東之役 以諒爲行軍元帥 率衆之遼水 遇疾疫 不利而還.

74) 『隋書』卷48, 列傳, 楊素: 十八年 突厥達頭可汗犯塞 以素爲靈州道行軍總管 出塞討之.

75) 『隋書』卷2, 帝紀, 文帝: (開皇19年) 達頭可汗犯塞 遣行軍總管史萬歲擊破之: 『隋書』卷63, 列傳, 楊義臣: 突厥達頭可汗犯塞 以行軍總管率步騎三萬出白道 與賊遇 戰 大破之.

76) 『資治通鑑』卷179, 隋紀, 文帝開皇20年(600): 突厥達頭可汗犯塞.

77) 『隋書』卷67, 列傳, 裴矩: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于箕子 漢世分爲三郡 晋氏亦統遼東 今乃不臣 別爲外域 故先疾焉 欲征之久矣 但以楊諒不肖 出師無功 當陛下之時 安得不事 使此冠帶之境 仍爲蠻貊之鄉乎.

78) 정일, 「甲骨文과 青銅器銘文을 통해 본 竹國·箕侯·亞其·孤竹·基方·長方に 대하여」, 『中國學研究』 10, 1996, 114쪽.

음을 보자.

F-1) 高麗小醜가 迷昏不恭하여 勃礪之間을 崇聚하고 遼獫之境을 烝食하였다. … 契丹之黨과 어울려 海戍를 습격하고 靺鞨之服을 배워 遼西를 侵軼(침범)하였다.⁸⁰⁾

F-2) 작은 高麗가 편벽한 황야에 살며 술개가 날개를 활짝 펼친 것처럼 위세를 부리고 방자하며 이리같이 물어뜯는 오만불손을 저질렀다. 우리 邊陲를 도적질하여 훔치고 또 우리 城鎮을 侵軼(침범)하기에 작년에 出軍하여 遼碣을 問罪하였다.⁸¹⁾

이상은 612년 1월과 614년 2월 수양제가 고구려 침공을 위하여 내린 조서에 나온 내용으로,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 원인은 F-1)과 F-2)의 원문에 제시된 '侵軼遼西'와 '侵軼我城鎮'이 '問罪遼碣'로 이어진다고 분석된다. 그런데 F-1) 기사에서 고구려가 '崇聚', 즉 '群聚'하였다는 '遼碣'은 요하와 갈석 사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 碣石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실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즉 『태평환우기』에서는 『尙書』를 인용하여 “갈석산은 곧 하천을 끼고 바다에 처해 있다. 지금 평주의 남쪽 20여 리에 있다. 곧 고구려가 갈석의 左이다”⁸²⁾라고 되어 있고, 『통전』 고구려조에서도 역시 『상서』를 인용하여 “우갈석은 즉 하천을 끼고 바다에 처해 있다. 지금 북평군 남쪽 20여 리에 있다. 곧 고구려에 있는 것은 좌갈석이다”⁸³⁾라며 좌우갈석에 대해 거론하

79) 윤용구,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北方史論叢』 5, 2005, 54쪽; 윤용구, 『고구려와 요동·현도군』,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156쪽.

80) 『隋書』 卷4, 帝紀, 煬帝大業8年; (春正月)高麗小醜 迷昏不恭 崇聚勃礪之間 烝食遼獫之境 … 乃兼契丹之黨 虔劉海戍 習靺鞨之服 侵軼遼西.

81) 『隋書』 卷4, 帝紀, 煬帝大業10年; 叢爾高麗 僻居荒表 鷓張狼噬 侮慢不恭 抄竊我邊陲 侵軼我城鎮 是以去歲出軍 問罪遼碣.

82) 『太平實字記』 卷173, 四夷, 高句麗; 碣石山則河赴海處 在今之平州南二十餘里 則高麗爲碣石之左也.

83) 『通典』 卷186, 邊防, 高句麗; 右碣石即河赴海處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 則高麗中爲左碣石.

고 있다. 또 『통전』 북평군 평주조에서는 “한의 肥如縣에 갈석산이 있는데 바다 쪽에 우뚝 서있어서 그 이름을 얻었다. 진태강지지에 秦이 쌓은 장성이 갈석으로부터 일어났다고 하였다. 지금의 고구려 구계에 있는 것은 이 갈석이 아니다”⁸⁴⁾라고 하였다.

『신당서』 지리지에는 “유성은 서북으로 해와 접하고 북으로는 거란과 접하였으며 동북으로 의무려산을 鎮하는 祠가 있고 또 그 동쪽에 갈석산이 있다”⁸⁵⁾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기사를 따르다면 갈석산은 발해만 해변가에 있던 우갈석과 고구려에 있던 좌갈석으로 나누어진다.⁸⁶⁾ 즉 좌우갈석 중 고구려 구계에 있었다고 하는 좌갈석이 고구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F-1)에서 '群聚'라는 의미는 좌갈석이 위치한 요서 일대가 고구려가 군취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거란과 말갈과 어울려 요서를 침범하였다'고 한 점은 고구려가 좌갈석을 넘어 우갈석 일대의 요서지역까지도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⁸⁷⁾

이상과 같은 고죽국과 갈석에 대한 문제와 F-1)과 F-2) 원문의 '侵軼遼西'와 '侵軼我城鎮'을 통해서 볼 때 598년 수문제의 침공 이후에 고구려군이 灤河 일대까지 진출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후일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 시에 饋運使를 맡았던 韋挺이 “幽州의 以北과 遼水 2천여 리에 州縣이 없다”⁸⁸⁾라는 말도 이와 무관하지 않나 생각된다. 난하 일대에 고구려군이 주둔한 흔적은 『承德府志』와 『欽定熱河志』에 高麗營⁸⁹⁾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된다. 고려영이 위치한 豐寧縣은 오늘날 난하 인근으로 譚其驥

84) 『通典』 卷178, 州郡; 漢肥如縣 有碣石山 礪然而立在海旁 故名之 晉太康地志云 秦築長城所起自碣石 在今高麗舊界 非此碣石也.

85) 『新唐書』 卷39, 地理志; 柳城 西北接奚 北接契丹 有東北鎮醫巫閭山祠 又東有碣石山.

86) 오강원, 『昌黎郡 位置에 관한 一考察』, 『清溪史學』 13, 1997, 39쪽.

87) 서병국, 앞의 논문, 63쪽.

88) 『舊唐書』 卷77, 列傳, 韋挺; 謂挺曰 幽州以北 遼水二千餘里 無州縣.

89) 『承德府志』 卷7, 疆域, 豐寧縣; 『欽定熱河志』 卷52, 疆域, 豐寧縣.

의 『중국역사지도집』에는 난하 상류의 한 지류인 伊瑪圖河에 위치하고 있다.⁹⁰⁾ 또한 동몽골 시라무렌하의 북쪽에 있는 巴林左翼旗(林東)에 高麗城子⁹¹⁾라는 지명도 보이고 있다.⁹²⁾ 이밖에도 612년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군 집결지가 柳城이 아닌 涿郡⁹³⁾이라는 점과 右12軍 중의 7군에 踏頓道와 9군에 礪石道가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증명이 된다. 이 중 踏頓道는 207년 曹魏의 조조에게 공격당하여 柳城에서 참수당한 烏桓의 수장 이름이 蹋頓인 것으로 파악된다.⁹⁴⁾

이는 599년 12월 별이 발해에 떨어졌다는 『수서』 고조기의 기록과도 무관하지 않다.⁹⁵⁾ 이 기사는 발해에서 변고가 일어났음을 알려 주는 기사로 주목되는데, 정황상 599년 12월에 발해만의 요서지역이 고구려군의 수중에 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수는 602년 12월 지금의 북베트남 지역인 交州에서 베트남인이 반란을 일으켜⁹⁶⁾ 수문제가 요서지역에 병력을 투입할 여건도 안 되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고죽국과 갈석에 대한 사실과 답돈도, 갈석도, 고려영, 고려성자에 대한 것과 당 韋挺의 말을 검토한다면, 599년 고구려군이 난하 부근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난하 일대까지 진출하였다고 하여도 고구려군 지휘부는 영주를 중심으로 하여 요서지역을 통제하였을 것이다. 결국 고구려에서 이런 요서진격을 주도한 인물은

90)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8, 中國地圖出版社, 1987, 7~8쪽.

91) 山崎總與, 『滿洲國地名大辭典』, 日本書房, 1941, 289쪽.

92) 이처럼 고구려군이 진출한 곳에서는 의례히 고구려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고구려성 자체는 문헌자료와 함께 고구려사 연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寺內威太郎, 『唐の高句麗侵略と遼東の高句麗山城』, 『靑丘學術論集』,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4, 19쪽).

93) 『隋書』 卷4, 帝紀, 煬帝: 八年春正月辛巳 大軍集于涿郡.

94) 『後漢書』 卷90, 烏桓鮮卑列傳: 建安十二年 曹操自征烏桓 大破蹋頓於柳城 斬之首虜二十餘萬人.

95) 『隋書』 卷2, 帝紀, 高祖: 開皇十九年…十二月…丁丑 星隕於勃海.

96) 『隋書』 卷2, 帝紀, 高祖: 仁壽二年…十二月…交州人李佛子舉兵反 遣行軍總管劉方討平之.

당연히 영양왕이었을 것이며 그것을 실제로 집행한 장수는 姜以式이었을 것이다.⁹⁷⁾ 물론 이러한 배경으로는 598년 1차적으로 隋軍이 전염병 등의 창궐로 인하여 자멸하고 고구려군의 군사역량이 요동지역에서 온전히 보존되었기에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분석된다.

3. 隋煬帝 침공과 고구려군의 遼西반격

603년에 철록 등 10여부가 달두가한을 배신하자 그는 토욕혼으로 도망하고 啓民可汗이 돌궐을 통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⁹⁸⁾ 이에 따라 수는 長孫晟을 磧口에 보내 계민가한을 통제하기 시작하여 막북에서 이제 수에 도전할 세력은 사실상 사라진다. 한편 수의 국내에서는 604년 7월 수문제가 죽고 호전적인 수양제가 등극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했다. 즉 수의 계속된 도움 아래 돌궐을 통일한 계민가한과 수양제의 등극은 고구려에게도 일정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주 등 요서지역의 중심부에서 작전상 후퇴하여 醫巫閭山과 遼澤을 경계로 對隋 방어선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612년 수양제의 침공 시에 요하 서변에 존재하는 武厲灘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⁹⁹⁾ 하지만 고구려군이 철수하였다고 해도 수가 요서지역의 핵심인 영주 일대를 바로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요서지역이 비어 있는 틈을 타서 거란이 영주에 침범한다. 즉 돌궐세력이 분열된 틈을 타서 동몽골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왔던 거란이 605년 8월 영주에 침입한 것이었다.

97) 『大東韻府群玉』 卷6: 高句麗時姜以式爲兵馬元帥以禦隋師.

98) 『隋書』 卷51, 列傳, 長孫晟: 三年 有鐵勒 思結 伏利具 渾 斛薩 阿拔 僕骨等十餘部 盡背遼頭 請來降附 遼頭衆大潰 西奔吐谷渾 晟送染干安置于磧口.

99) 『隋書』 卷81, 列傳, 高麗: 唯於遼水西拔賊武厲灘 置遼東郡及通定鎮而還.

G) 마침 거란이 營州를 침범하자 雲起에게 조를 내려 돌궐병을 동원하여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 계민가한은 2만 기병으로 節度를 받았다. … 처음에 거란은 허물 없이 돌궐을 섬겼고 운기 또한 별 걱정 없이 이르러 경내에 들어갔다. 돌궐로 하여금 柳城에 가서 고구려와 市易한다고 속여 대고 이 사실을 말하는 隋使는 참수하게 하였다. 거란이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때문에 남쪽으로 적의 군영에서 백리를 지나고 밤에 적진으로 돌려 날이 밝기 전에 습격하여 거란의 남녀 4만을 잡았다. 여자와 축산의 반은 돌궐에게 주었다.¹⁰⁰⁾

라는 『신당서』 韋雲起傳 기사에서 수의 通事謁者 韋雲起는 돌궐로 하여금 거란이 柳城에 가서 고구려와 교역을 하자고 속여 거란을 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거란이 영주를 침범하였는데 이를 영주총관이 방어하지 않고 통사알자인 위운기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¹⁰¹⁾ 599년 고구려군이 난하까지 진출한 이후 그에 연동하여 영주총관부는 방치되어 있다가 603년경 그 총관직책마저 空席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영주총관 위충은 595년 영주총관에 임명된 뒤 603년 9월 민부상서로 보직이 바뀐 것이다.¹⁰²⁾ 그렇기 때문에 영주총관이 아닌 통사알자가 거란의 침범에 대처하고 나섰다. 604년 고구려군의 철군 이후에 영주 일대를 바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던 수는 위운기를 통하여 계민가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계민가한은 수양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2만 기병을 이끌고 거란을 공격하여 남녀 4만 구를 노획하였다.

604년 철군한 정황은 고구려가 영주에서 교역이 가능하였다는 위 기사의

내용과,¹⁰³⁾ 돌궐은 吐屯 셋을 두어 실위를 거느리게 하였는데, 남실위는 철이 나지 않아 고구려로부터 철을 공급받았다는 기사¹⁰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고구려군이 철군한 이후인 605년 당시 영주 일대는 요동지역의 고구려, 화북지역의 수, 동몽골 지역의 거란, 막북지역의 돌궐세력이 교차하는 일종의 漸移地帶였던 것이다.

그러나 돌궐의 계민가한 군대가 공격하면서 605년 이후에 영주 일대는 수의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다. 수양제는 그 공을 인정하여 노획물 중에서 여자와 가축의 반을 계민가한에게 주었던 것이다. 한편 남녀 4만이 노획당한 거란의 처지는 다시 그 세력이 약화되어 돌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¹⁰⁵⁾

그러면서 수양제는 이 기회에 내심 불안한 돌궐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하여 607년 4월 50만의 대군을 이끌고 北巡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마침 수양제가 黃門侍郎 裴矩와 함께 계민가한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 사신을 조우하였고, 계민가한은 수양제에게 고구려 사신을 안내한다.¹⁰⁶⁾ 이것은 607년 무렵에 들어와 영양왕이 돌궐과 비밀 교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사례로, 고구려가 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면 이는 이미 계민가한과 수의 입장에도 일정한 괴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¹⁰⁷⁾ 그러나 고구려와 돌궐이 내부적으로 연합을 시도하였다고는 하나, 성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¹⁰⁸⁾ 이는 계민가한이 고구려의 사신을 수양제에게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100) 『新唐書』 卷103, 列傳, 韋雲起; 會契丹寇營州 詔雲起護突厥兵討之 啓民可汗以二萬騎受節度… 始 契丹事突厥無間 且不虞雲起至 既入境 使突厥給云詣柳城與高麗市易 敢言有隋使在者斬 契丹不疑 因引而南 過賊營百里 夜還陣 以暹明掩擊之 獲契丹男女四萬 以女子及畜產半賜突厥.

101) 『資治通鑑』 卷180, 隋紀, 煬帝大業元年(605); 契丹寇營州 詔通事謁者韋雲起 護突厥兵討之 啓民可汗發騎二萬 受其處分.

102) 『隋書』 卷2, 帝紀, 高祖; 仁壽三年… 九月… 以營州總管韋沖爲民部尚書.

103) 이미 이 주변에서는 북연시기에도 交市가 열린 적이 있다(『晉書』 卷125, 載記, 馮跋: 庫莫奚 虞出庫真率三千餘落詣交市 獻馬千匹 處之於營丘).

104) 『隋書』 卷84, 列傳, 室韋; 突厥常以三吐屯總領之 南室韋在契丹北三千里 土地卑濕… 其國無鐵 取給於高麗.

105) 『舊唐書』 卷193, 列傳, 突厥; 始畢可汗咄吉者 啓民可汗子也 隋大業中 嗣位 值天下大亂 中國人奔之者衆 其族強盛 東自契丹 失韋 西盡吐谷渾 高昌諸國 皆臣屬焉.

106) 『隋書』 卷67, 列傳, 裴矩; 從帝巡于塞北 行啓民帳 時高麗遣使先通突厥 啓民不敢隱 引之見帝.

107) 정재훈,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 『中國史研究』 13, 2001, 102쪽; 정재훈, 「隋煬帝(604-617)의 對外政策과 天下巡行」, 『中國史研究』 30, 2004, 50쪽.

해석이 가능하다. 여하튼 중국의 군주가 북방제국의 행막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수는 돌궐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¹⁰⁹⁾ 이러한 점을 간파한 배구는 계민가한과 고구려 사이의 교섭은 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구려왕의 입조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수와 고구려의 관계에는 돌궐이라는 지렛대가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09년 11월 돌궐의 계민가한이 죽고¹¹⁰⁾ 그 아들 뱀기이 始畢可汗으로 등극한 후에, 돌궐과 수의 관계에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수양제로서는 605년 거란 토벌 시 돌궐이 동원된 것처럼 장차 고구려 원정에 돌궐 군사를 동원하려 했으나 계민가한의 죽음으로 이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시필가한 시대의 돌궐은 점차 강성해져 그 군대가 백만에 이르렀으며 거란, 실위, 토욕혼, 고창 제국을 모두 복속시켰다.¹¹¹⁾ 따라서 시필가한은 계민가한처럼 일방적으로 수에 신속하지 않았다.

H) 吐谷渾을 張掖에서 공격하여 駭트려서 金紫光祿大夫가 더해졌다. 寇掠해 온 靺鞨을 斬獲하여 左光祿大夫에 제수되고 고구려에 宗軍하여 光祿大夫의 位로 승진하였다.¹¹²⁾

이즈음 말갈이 수의 변경을 침범하는 기사가 있어 주목되는데, 위 기사는 『수서』 배인기전으로 여기서 말갈이 침범하자 裴仁基가 이를 격퇴하였

108) 박원길, 「高句麗와 柔然·突厥의 關係」, 『高句麗國際關係』, 高句麗研究會, 2002, 24쪽.
 109) 변인석, 隋末唐初 中國의 突厥에 대한 '稱臣事'의 學說史的 考察, 『東方學志』 80, 1993, 97쪽.
 110) 계민가한의 죽음에 대해 『수서』 돌궐전에는 608년, 『자치통감』은 609년 11월, 『책부원구』는 614년으로 되어 있다. 중국학자 薛宗正은 이 중 614년을 지지하고 있으나(薛宗正, 앞의 책, 197쪽), 본고에서는 『자치통감』의 609년 11월설을 따른다.
 111) 『舊唐書』 卷193, 列傳, 突厥: 其族強盛 東自契丹 室韋 西盡吐谷渾 高昌諸國 皆臣屬焉 控弦百餘萬 北狄之盛 未之有也.
 112) 『隋書』 卷70, 列傳, 裴仁基: 擊吐谷渾於張掖 破之 加授金紫光祿大夫 斬獲寇掠靺鞨 排左光祿大夫 從征高麗 進位光祿大夫.

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수가 토욕혼을 張掖에서 격퇴한 것은 609년의 일이므로,¹¹³⁾ 배인기가 말갈을 격퇴한 것도 609년의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말갈이 공격한 지역은 수의 영주 일대로 생각되는데, 이때의 공격은 고구려의 사주에 의한다. 이는 F-1)의 612년 1월 수양제가 고구려 침공에 앞서 내린 조서에서 '靺鞨之服을 배워 요서를 침범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그 단서가 있다. 즉 '靺鞨之服'이란 표현을 음미하여 보면 그것이 위 기사 말갈의 요서 공격에 대한 고구려의 사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수양제는 고구려 침공의 명분으로 '侵軼遼西'와 '侵軼我城鎮', '問罪遼碭'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고구려가 '契丹之黨'과 어울리고 있는 점도 두려워하였다. 수가 고구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란의 영향권 아래 있는 영주지역을 거쳐야 했다. 말하자면 영주 일대는 고구려로 통하는 '咽喉地帶'였던 셈이다.¹¹⁴⁾ 그러나 영양왕은 수양제의 입조요구를 거부하며¹¹⁵⁾ 거란 및 말갈, 돌궐과 연계하여 수에 대응하려 했다. 따라서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요동 등 고구려 영토에 대한 침탈보다도 요서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고구려의 굴복 확인에 있었던 것이다.

즉 수양제는 사상초유의 대규모 원정군인 113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하여 612년 1월 고구려 침공을 시작한다. 이런 병력동원 규모는 607년 수양제가 복순하여 돌궐에 그 위용을 과시한 수인 50만 군의 배가 넘는 수에 해당하며, 113만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볼 때도 수양제의 고구려 굴복에 대한 절박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612년과 613년, 614년 등 3차례의 침공에서 수양제는 요하 서변의 武厲邏를 함락시키고 通定鎮과 遼東郡을 설치하는 정도의 성과를 얻었

113) 『資治通鑑』 卷181, 隋紀, 煬帝大業5年(609): 擊吐谷渾 至青海... 至張掖.
 114) 『資治通鑑』 卷182, 隋紀, 煬帝大業9年(613): 據臨渝之險 扼其咽喉.
 115) 『隋書』 卷67, 列傳, 裴矩: 請面詔其使 放還本國 遣語其王 令速朝覲 不然者 當率突厥 即日誅之 帝納焉 高元不用命 始建征遼之策.

을 뿐이다. 이 무려라에 대해 525~527년간에 설치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436년 고구려군 2만이 和龍에 진출한 이후에 무려라가 설치되었을 것이다.¹¹⁶⁾ 다음의 사료를 검토하여 보자.

I-1) 5년(609) 車駕가 서로 갔다. … 明年(610)에 고구려 武列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켜 苑丘侯라는 작위를 주었다. 8년(612) 渾彌道로 가고 9년(613)에 다시 遼東으로 나갔다.¹¹⁷⁾

I-2) 車駕가 西巡하였다. … 明年(610)에 고구려 武厲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켜 苑丘侯라는 작위와 비단 1천 필을 주었다. 8년(612)에 渾彌道로 가고 9년(613)에 다시 遼東으로 나갔다.¹¹⁸⁾

이상은 『북사』 이경전과 『수서』 이경전의 내용으로, 무려라가 『수서』 고려전¹¹⁹⁾과 『자치통감』¹²⁰⁾에 ‘武厲邏’로 표기되어 있는데 비해, I-1)과 I-2)에서는 ‘武列城’과 ‘武厲城’으로 나와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 小城에 可邏達을 두었다는 『한원』의 기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²¹⁾ 武厲邏에서 ‘邏’와 可邏達의 ‘邏’가 같은 글자임을 고려한다면, 무려라가 고구려의 변방에 위치한 小城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한원』에는 고구려 무관에 大模達이 있다고 하였고,¹²²⁾ 이 大模達의 ‘達’과 可邏達의 ‘達’이 같은 어휘의 개념으로

116) 박경철, 「高句麗 邊方の 擴大와 構造的 重層性」, 『韓國史學報』 19, 2005, 241쪽.

117) 『北史』 卷76, 列傳, 李景: 五年 車駕西巡 至天水 景獻食於帝 帝曰 公 主人也 賜坐齊王 曠上 至隴川宮 帝將大獵 景與左武衛大將軍郭衍俱有難色 爲人奏… 竟以坐免 歲餘 復位 與宇文述等參掌選舉 明年 攻高麗武列城 破之 賜爵苑丘侯 八年 出渾彌道 九年 復出遼東.

118) 『隋書』 卷65, 列傳, 李景: 五年 車駕西巡 至天水 景獻食於帝 帝曰 公 主人也 賜坐齊王 曠之上 至隴川宮 帝將大獵 景與左武衛大將軍郭衍俱有難言 爲人所奏… 竟以坐免 歲餘 復位 與宇文述等參掌選舉 明年 攻高麗武厲城 破之 賜爵苑丘侯 物一千段 八年 出渾彌道 九年 復出遼東.

119) 『隋書』 卷81, 列傳, 高麗: 唯於遼水西拔賊武厲邏 置遼東郡及通定鎮而還.

120) 『資治通鑑』 卷181, 隋紀, 煬帝大業8年(612): 唯於遼水西拔高麗武厲邏 置遼東郡及通定鎮而已.

121) 『翰苑』 卷30, 蕃夷部, 高麗: 諸小城置可邏達.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견해¹²³⁾를 인용한다면, 무려라의 군사적 기능은 충분히 입증된다. 즉 ‘武列城’ 또는 ‘武厲城’이 요하 서쪽을 관장하는 고구려의 소성으로, 무려라가 단순히 ‘邏’가 아닌 지방 행정단위의 ‘小城’으로서 ‘武列城’ 또는 ‘武厲城’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무려라가 언제 함락되었는지는 I-1)과 I-2)의 사료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明年’을 문자 그대로 볼 경우 ‘明年’은 610년에 해당하지만, I-1)과 I-2)에서 이경이 渾彌道로 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612년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 시 혼미도가 우12군의 하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도, I-1)과 I-2)의 ‘明年’은 612년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무려라의 함락은 612년 수양제의 침공 시에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려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것을 通定鎮으로 보고 新民縣의 遼濱塔古城과 高臺山 高麗城 그리고 의무려산 일대라는 기왕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무려라의 위치는 『자치통감』 胡註에 “고구려는 遼水の 서쪽에 邏를 설치하여 度遼者를 경찰하였다”¹²⁴⁾라는 해석을 따를 때, 의무려산 일대설은 적당하지 않다.

여기서 遼河 渡河路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요하 도하로는 3개의 노선이 있는데, 南路는 燕郡~汝羅~遼隊의 순서이고, 中路는 懷遠鎮~險瀆~襄平, 北路는 通定鎮~玄菟~新城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¹²⁵⁾ 612년 수양제 본군의 행군노선을 남로, 중로, 북로라는 요하 도하로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면, 중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645년 당태종의 침공노선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것은 遼澤 → 遼頓 → 遼水로 이어진다.¹²⁶⁾ 여기서 ‘遼頓’이라는 단어에서 ‘頓’字가 사용된 예는 『수서』 우작전에 나오는 柳城縣의 ‘臨海頓’¹²⁷⁾을 들을 수가 있다. ‘臨海頓’이 『책부원구』 기사에

122) 『翰苑』 卷30, 蕃夷部, 高麗: 其武官曰大模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123) 山尾幸久, 「朝鮮三國의 軍區組織」,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161쪽.

124) 『資治通鑑』 卷181, 隋紀, 煬帝大業8年(612): 高麗置邏於遼水之西以警察度遼者.

125) 金毓敏, 『東北通史』, 洪氏出版社, 1976, 326~327쪽; 王綿厚, 「唐 營州至安東 陸路交通 地理考實」, 『遼海文物學刊』 1, 1986, 77쪽; 王綿厚·李健才, 앞의 책, 1990, 140~152쪽.

126)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 車駕次遼澤 丙子 師次臨遼頓 其夕 遼水減三尺.

서는 '臨海戍'¹²⁸⁾라고 나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頓'과 '戍'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康熙字典』에서는 '頓'을 '宿食所'라고 하고 있어 遼頓의 성격은 일종의 '兵營'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遼頓을 검토하면 무려라의 위치는 중로의 오늘날 요녕성 台安縣 요하 서쪽 일대가 적당하다.

이제 요서에 위치한 무려라가 612년에 함락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고구려군이 요서지역으로 반격을 가하지 않았는지 고찰을 하여 보기로 한다. 이에 관하여는 우선 수대 영주 일대에 정착한 돌지계 집단을 주목할 수 있다.

J-1) 煬帝初에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빈번히 그 무리들이 패하니 渠帥 度地稽가 그 部를 거느리고 항복하여 右光祿大夫에 제수되었다. 柳城에 거주하여 邊人과 來往하였다. 中國의 風俗을 좋아하여 冠帶를 청하니 帝는 이를 가상히 여겨 錦綺를 내려주고 총애하였다. 遼東之役에 度地稽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종군하여 매번 戰功이 있었는데 상을 후하게 내렸다.¹²⁹⁾

J-2) 開皇(581~600)중에 粟末靺鞨이 고구려와 싸워 이기지 못하였는데, 厥稽部の 渠長인 突地稽라는 者가 忽使來部 窟突始部 悅稽蒙部 越羽部 步護賴部 破奚部 步步括利部 등 무릇 八部の 勝兵 數千人을 끌고 扶餘城 西北에서 部落을 들어 內附해 왔다. 이들을 柳城에 거주하게 하였다.¹³⁰⁾

127) 『隋書』 卷76, 列傳, 虞綽傳: 從征遼東 帝舍臨海頓... 行宮次于柳城縣之臨海頓焉 山川明秀 實仙都也 旌門外設 款跨重阜 帳殿周施 降望大壑.

128) 『冊府元龜』 卷113, 帝王部, 巡幸: 太宗貞觀十九年... 四月丁未 發幽州 丁巳 次北平 登臨海戍 降望大壑 五月 庚午 次遼澤.

129) 『隋書』 卷81, 列傳, 靺鞨: 煬帝初與高麗戰 頻敗其衆 渠帥度地稽率其部來降 拜爲右光祿大夫 居之柳城 與邊人來往 悅中國風俗 請被冠帶 帝嘉之 賜以錦綺而褒寵之 及遼東之役 度地稽率其徒以從 每有戰功 賞賜優厚.

130) 『太平實宇記』 卷71, 燕州: 開皇中粟末靺鞨與高麗戰不勝 有厥稽部渠長突地稽者 率忽使來部 窟突始部 悅稽蒙部 越羽部 步護賴部 破奚部 步步括利部 凡八部 勝兵數千人 自扶餘城 西北舉部落向關內附 處之柳城.

라는 기사는 돌지계의 수에의 귀속은 '開皇中'이라는 것과 귀속원인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 그 결과 厥稽部の 渠長인 돌지계가 8부의 勝兵 수천 인을 이끌고 유성 즉 영주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J-2)의 '개황 중'은 581~600년에 해당함으로 모두 19년이 걸리고 있는데, 『구당서』 말갈전에는 "돌지계가 隋末에 그 부락 천여 가를 이끌고 영주에 내부하였다"¹³¹⁾라고 나와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590년 수문제가 평원왕에게 보낸 조서에서 '驅逼靺鞨 固禁契丹'이 나오며, 이 중 '구핍말갈'은 『태평환우기』 연주조에서 인용된 수북변풍속기에 나오는 "개황 중에 속말말갈이 고구려와 싸워 이기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와 속말말갈 돌지계와의 싸움에서 '개황 중'을 584년 또는 585년 무렵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다.¹³²⁾ 그렇다면 584년과 585년경에 돌지계의 영주귀속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시점인 590년에 수문제가 평원왕에게 보낸 조서에서 '구핍말갈'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¹³³⁾ 따라서 J-1)의 『수서』 말갈전과 『구당서』 말갈전의 돌지계 집단의 영주 귀속시점에 대해 '양제 초'와 '수 말'이라고 한 것은 모두 오류일 것이다. 다음을 보자.

K-1) 煬帝 8년(612)에 遼西郡을 설치하여 突地稽로 太守를 삼아 營州 동쪽 2百里的 汝羅故城을 다스리게 하였다. 後에 邊寇의 침략을 당하여 다시 營州城內에 寄理하여 다스렸다.¹³⁴⁾

K-2) 隋大業 8년(612) (燕州)를 설치하여 遼西郡에 속하게 하였다. 더불어 郡은 汝羅故城에 같이 있었다. 11년(615)에 이르러 柳城에 寄理하여 다스렸다.¹³⁵⁾

131) 『舊唐書』 卷199, 列傳, 靺鞨傳: 有酋帥突地稽者 隋末率其部千餘家內屬 處之於營州.

132) 菊池英夫, 앞의 논문, 29쪽.

133) 日野開三郎, 앞의 책, 228쪽.

134) 『太平實宇記』 卷69, 河北道 幽州: 煬帝八年爲置遼西郡 以突地稽爲太守 理營州東二百里 汝羅故城 後遭邊寇侵掠 又寄理於營州城內.

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돌지계는 612년에 영주 동쪽 2백 리의 汝羅故城을 다스렸는데, 돌지계가 ‘邊寇侵掠’을 당하여 영주성 내에 ‘寄理’하여 여라고성을 다스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리’는 의탁의 뜻인데, ‘기리’시점에 대해 K-1)의 ‘後’가 K-2)에서는 ‘11년’으로 나옴으로 결국 ‘변구침략’은 615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615년은 수양제의 612년, 613년, 614년의 3차에 걸친 고구려 침공의 다음 해에 해당한다. 또 ‘변구침략’을 당한 곳은 ‘영주 동쪽 2백 리의 여라고성’이라 하였다. 여라고성의 위치가 義縣의 동남과 대릉하 하류의 서안에 있다고 하는 견해를 따른다면,¹³⁶⁾ 615년에 여라고성을 공격한 ‘변구’는 고구려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변구침략’ 사건은 3차에 걸친 침공의 실패로 혼란에 빠진 수에 대한 고구려의 반격으로 판단되며, 수가 여라고성에 돌지계 집단을 배치해 고구려와 대항하게 한 것은 전형적인 以夷制夷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위 사료는 612년 무려라가 함락된 이후에도 고구려군이 요서에 진격하여 수를 공격하였음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무려라 함락 이후 615년 여라고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고구려는 다시 요하 이서 지역의 의무려산과 요택을 경계로 對隋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결국 고구려에서 598년 요서 선제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요하와 대릉하를 넘나든 배경에는 물론 영양왕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영양왕은 광개토왕과 비견될 수 있는 인물에 해당한다. 이는 광개토왕의 “나서부터 雄偉하고 뜻이 출중하였다”¹³⁷⁾라는 기록과, 영양왕의 “風神이 준수하고 濟世安民을 자임하였다”¹³⁸⁾는 기록에서도 그 인물성향이 비교된다. 다만 광개토왕은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원정활동을 하여 고구려군의 기세를 드높

였지만, 영양왕은 중국의 통일제국인 수에 맞서 당당히 요서로 진격하였다 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4. 맺 음 말

이상 고구려의 대수전을 통하여 요서진출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581년과 582년 사이에 고구려는 당시 거란을 기미지배하던 돌궐의 利稽察을 공격한다. 즉 돌궐이 고보녕사건에 개입하여 수와의 대결에 집중한 틈을 타 고구려가 요서지역 거란의 항배를 놓고 돌궐과 대립하여 돌궐 세력을 공격한 것이다.

이후 고구려는 통일된 수의 압박을 받았는데, 고구려는 598년 2월 영양왕이 직접 말갈기병 1만여 명을 동원하여 요서를 선제 타격하였다. 598년 영양왕의 공격은 395년 광개토왕의 稗麗 원정 이후 200여 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요서지역에 대한 친정이라는 의미와 함께, 고구려군 3만이 투입되는 475년 백제 한성 공함전 이후 1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왕의 친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당시 고구려 정체세력 간의 분열은 안장왕 이후 영양왕의 조부인 양원왕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영양왕대에도 연결되었다. 따라서 영양왕은 왕권강화를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또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수에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친정이라는 형태의 요서공격이었다.

돌궐의 達頭可汗이 598년과 599년, 600년에 걸쳐 수를 연속 공격한다. 이는 달두가한이 수문제의 고구려 침공 실패를 이용하여 수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고구려는 달두가한의 공격과 연동하여 수에 반격을 가한다. 즉 612년 1월과 614년 2월 수양제가 내린 조서에서 고구려가 群聚하였다는 遼碣은 요하와 갈석 사이를 지칭한다. 또 ‘거란과 말갈과 어울려

135) 『太平實字記』 卷71, 燕州: 隋大業八年置 屬遼西郡 與郡同在汝羅故城之□ 至十一年寄理柳城.

136) 孫進己·馮永謙 總纂,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287쪽.

137)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廣開土王元年: 生而雄偉 有倜儻之志.

138)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嬰陽王元年: 諱元 平原王長子也 風神俊爽 以濟世安民自任.

요서를 침범하였다'고 한 점 등은, 599년 고구려군이 난하 일대까지 진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599년 12월 별이 발해에 떨어졌다는 『수서』 고조기의 기록도 무관하지 않다. 이 기사는 발해에서 변고가 일어났음을 알려 주는 기사로 주목되는데, 정황상 599년 12월에 발해만의 요서지역이 고구려군의 수중에 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고구려군이 난하 일대에 주둔한 흔적인 高麗營, 高麗城子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면, 599년 고구려군이 난하 일대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난하 일대까지 진출하였다고 하여도 고구려군 지휘부는 영주를 중심으로 하여 요서지역을 통제하였을 것이다. 물론 고구려에서 이런 요서진격을 주도한 인물은 당연히 영양왕이었을 것이며 그것을 실제로 집행한 장수는 姜以式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598년 1차적으로 隋軍이 전염병 등의 창궐로 인하여 자멸하고 고구려군의 군사역량이 요동지역에서 온전히 보존되었기에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분석된다.

603년에 철록 등 10여부가 달두가한을 배신하자 그는 토욕혼으로 도망하고 계민가한이 돌궐을 통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막북에서 수에 도전할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한편 수에서는 604년 7월 수문제와 죽고 호전적인 수양제가 등극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한다. 즉 수의 계속된 도움 아래 돌궐을 통일한 계민가한과 수양제의 등극은 고구려에게도 일정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주 등 요서지역의 중심부에서 작전상 후퇴하여 醫巫閭山과 遼澤을 경계로 對隋 방어선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612년 수양제의 침공 시에 요하 서변에 존재하는 武厲灘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수양제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615년 영주 동쪽 2백 리의 汝羅故城을 공격한다. 여라고성 공격은 612년 무려라가 함락된 이후에도 고구려군이 요서에 진격하였음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례에 해당한다. 여라고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고구려는 다시 의무려산과 요택을 경계로 대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다.

결국 수가 고구려를 침공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侵軼遼西'와 '侵軼我城鎮'이었고 그것이 '問罪遼碣'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 더 나아가 요동 등 고구려 영토에 대한 침탈보다도 요서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고구려의 굴복 확인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고구려에서 이러한 수의 압박을 물리치고 요서로 진격하는 배경에는 영양왕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영양왕은 고구려 전기의 광개토왕과 비견될 수 있는 인물에 해당한다. 다만 광개토왕은 중국이 분열하였을 때 원정활동을 하여 고구려군의 기세를 드높였지만, 영양왕은 중국의 통일제국인 수에 맞서 당당히 요서로 진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5. 25, 심사수정일 : 2009. 7. 30, 게재확정일 : 2009. 8. 12)

주제어: 영양왕, 요서, 난하, 고려성, 여라고성, 무려라, 영주, 의무려산, 거란, 돌궐

<ABSTRACT>

A Study on Attack against *Liaoxi* and War between *Sui* and *Goguryeo*

Yoon, Byoung-mo

This thesis is aimed to explore the advance for *Liaoxi* of the *Goguryeo*. New information in this thesis will be revealed as followings:

This thesis inspected the advance of *Liaoxi* for *Goguryeo*. It was carried out by a war between *Sui* and *Goguryeo*. That is, Yongyangwang of *Goguryeo* attacked *Liaoxi* first in 598 A.D. And it is connected with three attacks by Suiwendi and Suiyangdi. In 598 A.D., Suiwendi invaded *Goguryeo* with thirty thousand soldiers.

At this time, *Goguryeo* advanced till Luanhe of *Liaoxi* by pursuing the soldiers of *Sui*. The advance to Luanhe of *Goguryeo* connected the third attack of Suiyangdi. *Sui* obtained only Muryora during the attack of *Goguryeo* in 612 A.D. So far, Muryora has presented a view of xinminxian of the north-road of Liaohe. But, *Sui* didn't attack the north-road of Liaohe in 612 A.D. Therefore, Muryora didn't exist in xinminxian. Here, Muryora fell by the of the *Sui* in 612 A.D. That is, Liaodun saw Caekbuwongwi. Because, the order of invasion of the *Goguryeo* of Tangtaizong is Liahe~Liaodun~Liaze.

So far, this thesis has inquired about advancement for the *Liaoxi* by *Goguryeo*. Also, this thesis inquired about the advance for *Liaoxi* of *Goguryeo* during the invasion of *Sui*.

But through a war with the *Sui*, *Goguryeo* lost the right of regulation for

west of Dalinghe. Through it, one can know that *Goguryeo* controlled the *Liaoxi* also possessed west of Dalinghe from 599 A.D. to 604 A.D.

Therefore, through the advancement for *Liaoxi* by *Goguryeo*, one can learn very important historical events.

Key Words : Yongyangwang, *Liaoxi*, Luanhe, *Goryeosung*, Ruluogucheng, Muryora, Yingzhou, Yiwulushan, Qidan, Turk